

# 제주 개나리(발아) 관측

【 2022. 3. 15.(월) /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】

## □ 개나리 현황

- 제주지방기상청의 계절관측용 개나리가 3월 15일에 발아하였으며, 이는 작년(2021년)보다 20일 늦었고, 평년(1991~2020년)보다 8일 늦었다.

## □ 계절 관측 현황

2022년			작비	평비
지역	요소	관측일		
제주	개나리(발아)	3월 15일	+20	+8

- 제주의 개나리 발아는 올해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아 발아가 늦었고, 작년과 비교해서는 올해 기온과 비교했을 때 기온이 낮은 날이 많고 기온 변화 폭이 커 발아가 작년보다 20일가량 늦었다.

## □ 관련사진



2022.03.15. 제주 개나리(발아)

- ※ 발아: 식물의 눈을 보호하고 있는 인피가 터져서 잎이나 꽃잎이 보이는 상태  
발아일: 잎눈이나 꽃눈에 관계없이 관측목 눈의 총수 중 20% 정도가 발아한 날
- ※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관측장소 내에 계절관측의 대상이 되는 식물(매화, 개나리, 진달래 등)을 지정하여 관측하고 있는데, 발아 또는 개화의 시기는 온도와 일조 등의 기상조건과 나무의 종류, 나이, 영양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